



아모레퍼시픽 한울 '한울시장 한정판 에디션' 출시

아모레퍼시픽 한울이 '한울시장 한정판 에디션'을 내놓았다. 빨간쌀 진액 2종, 어린이수분진정 2종, 달빛유자C 세럼, 힐찬공 탄력 2종 등으로 구성했다. 제품 대표 원료가 모이는 한국의 전통 시장을 모티브로 제작했다. 농산물 박스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패키지에 담았으며 제품 대표 원료의 생산지, 효능, 재배일 정보를 담아 선물 가치를 높였다.

신세계, 호남권 최초 복합쇼핑몰 건립 추진



신세계그룹이 광주광역시에 호남권 첫 대형 복합쇼핑몰인 스타필드 광주와 미래형 백화점 광주신세계 아트 앤 컬처 파크를 동시에 만드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사진은 스타필드 광주 조감도. 사진제공 | 신세계

“광주에 초대형 스타필드·백화점 선보인다”

체류형 쇼핑몰로 지역경제 기여
“휴양과 결합…지역 관광 메카로”
기존 광주신세계도 업그레이드
‘에루샤’ 입점해 쇼핑의 질 높여

신세계그룹이 광주광역시에 호남권 첫 대형 복합쇼핑몰인 스타필드 광주(가칭) 건립을 추진한다. 또 기존 광주신세계는 미래형 프리미엄 백화점으로 업그레이드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이었던 광주 복합쇼핑몰의 청사진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앞서 7월 6일 현대백화점그룹도 서울 여의도 더현대 서울을 능가하는 미래형 복합쇼핑몰 ‘더현대 광주(가칭)’을 건립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체류형 복합쇼핑몰 스타필드 광주 개발

신세계프라퍼티는 17일 복합쇼핑몰인 스타필드를 운영하고 있는 경험과 역량을 총 집결해 광주광역시 어등산 부지에 쇼핑·문화·레저·엔터에 휴양까지 한 곳에서 즐길 수 있는 체류형 복합쇼핑몰 스타필드 광주를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주 외곽의 어등산 관광단지를 후보



광주신세계 아트 앤 컬처 파크 조감도

지로 선정된 이유는 넓은 부지에 다양한 체험시설을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을 갖췄기 때문이다. 스타필드 광주는 쇼핑·근린생활시설, 체험형 콘텐츠, 레저와 휴양이 결합된 초대형 규모의 체류형 복합쇼핑몰로 개발해 지역사회를 발전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궤적한 구성의 매장에 300여 개 이상의 다양한 브랜드와 도심형 워터파크, 체험형 스포츠시설 등이 들어선다. 지역 특성과 고객 니즈, MZ세대 라이프스타일을 매장 구성에 반영하고, IT기술을 활용한 문화 향유 콘텐츠 등을 선보인다. 도심 외곽의 대형 부지를 사용하는 만큼 교통 혼잡과 주차난에서도 자유로울 전망이다.

임영록 신세계프라퍼티 대표는 “오래

전부터 검토해 온 스타필드 개발 사업을 광주와 호남 고객들께 제안드릴 수 있게 돼 감사한 마음이다. 스타필드 광주만의 차별화된 콘텐츠를 선보임은 물론, 휴양이 결합된 진정한 체류형 복합쇼핑몰을 개발해 지역 관광의 메카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부지 확정, 마스터플랜, 행정 절차를 마치고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예술과 문화 담은 미래형 백화점 오픈

기존 광주신세계는 국내 최고의 랜드마크 백화점인 광주신세계 Art&Culture Park(아트 앤 컬처 파크·가칭)로 개발한다.

내년 착공 예정으로, 강남점의 고품격, 센텀시티점의 매머드급 규모, 대전

점의 복합문화예술공간 등 전국 각지 매장의 장점을 결합한 미래형 프리미엄 백화점으로 거듭난다. 이들에 들어가는 예술과 문화는 물론, 최첨단 과학과 최신 트렌드의 쇼핑 콘텐츠를 결합해 지역민의 생활을 업그레이드한다. 현재 영업 중인 광주신세계와 이마트 부지 외에도 인근 보유 부지를 더해 새로운 랜드마크를 선보일 계획이다.

또 최신 디지털 트렌드가 담긴 ‘스마트 스토어’를 구현한다. 블록체인 결제, 디지털 미디어, 인공지능(AI), 메타버스, NFT 등 다양한 기술로 고객 경험을 극대화하며, 지역 대학 및 스타트업과 협업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도 펼친다.

여기에 유명 해외 설계사와의 협업을 통해 혁신적이고 독창적인 건축설계로 광주의 경관을 새롭게 한다는 포부도 세웠다. 광주·호남 지역 최초로 ‘에루샤’(에르메스·루이비통·샤넬)를 입점해 쇼핑의 질도 높일 예정이다.

이동훈 광주신세계 대표는 “혁신을 거듭해온 신세계가 강남점의 ‘럭셔리’에 센텀시티점의 ‘초대형’ 위용을 결합한 광주 지역의 새 랜드마크 개발에 나선다”며 “차별화된 콘텐츠와 브랜드로 가득 채운 지역민들이 원하는 명소를 빠르게 선보이겠다”고 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연구소, 호텔, 병원 등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LG 클로이 로봇’. LG전자는 국내 서비스 로봇 사업 확대를 위해 KT와 손잡고 차세대 로봇 연구개발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을 진행한다. 사진제공 | LG전자

LG전자-KT, 서비스 로봇 사업 확대 맞춘 “KT 운영 노하우에 LG 클로이 로봇 접목”

차세대 로봇 개발 협력…플랫폼 구축 통해 경쟁력 ↑

LG전자와 KT가 국내 서비스 로봇 사업 확대를 위해 손을 잡았다. KT의 로봇 운영 사업에 ‘LG 클로이 로봇’과 솔루션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LG전자와 KT는 17일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에서 ‘국내 서비스 로봇 사업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사는 로봇 제조 및 서비스 분야 역량을 결합해 신사업 기회 발굴 확대, 차세대 로봇 연구개발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 국내 서비스 로봇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플랫폼 구축 및 정부 로봇 과제 협력 등을 단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LG전자는 자율주행과 센서, 인공지능(AI), 카메라 등 로봇 솔루션 관련 핵심 기술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KT가 보유한 통신·네트워크 기술력과 안내, 배송, 서빙 등 다양한 로봇 사업 운영 노하우에 접목해 로봇솔루션을 더 고도화하고 로봇 판매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LG전자는 2017년 인천국제공항에서 ‘가이드봇’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서브봇’ 2종, ‘바리스타봇’, ‘셰프봇’, ‘UV-C봇’에 이어 자율주행 기반 물류 로봇과 캐리봇에 이르는 ‘LG 클로이 로봇’ 7종을 운영하고 있다. KT는 2019년 선보인 ‘AI호텔로봇’을 시작으로 식음료(F&B) 배달로봇, 고령층 돌봄서비스용 AI케어로봇,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로봇, 자율주행 실외 배송 로봇 등의 상용화에 나서고 있다.

양사는 다양한 서비스 로봇을 생활 속으로 전파하고, 새 로봇 개발에도 협력할 계획이다. 또 구체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추진하는 한편, 국내 로봇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상호 협력한다는 목표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롯데면세점, 이준호·에스파 새 모델 발탁



롯데면세점은 가수 겸 배우 이준호(사진)와 걸그룹 에스파를 새 모델로 발탁하고 글로벌 마케팅을 본격 재개한다. 10일 SNS를 통해 에스파의 모델 발탁을 알리는 영상을 공개했으며 17일 두 번째 모델인 가수 겸 배우 이준호 영상을 업로드할 예정이다. 롯데면세점은 이를 기념해 SNS 이벤트를 진행하고, 하반기에 순차적으로 모델 라인업을 선보일 계획이다. 롯데면세점은 앞으로 매장 SNS, LDF매거진을 통해 두 모델의 매력이 담긴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인다.

“직접 키워 먹는다” 홈파밍 아이템 판매량 ↑

고물가 시대에 직접 채소를 키워 먹는 ‘홈파밍’이 눈길을 끈다. 17일 위메프에 따르면 7월 10일부터 8월 9일까지 판매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홈파밍 아이템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 먼저 초보자도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모종과 씨앗류의 판매량이 급증했다. 상추 모종과 대파 모종이 각각 98%, 197%로 크게 늘었고, 무씨(27%)와 고추씨(67%)도 증가했다. 미니화분은 116%, 식물재배기는 297% 판매량이 각각 늘었고 부자재인 분갈이 흙(34%)과 원예가위(176%) 등의 판매량도 상승했다.

편집 | 신하늬 기자 mythuki@donga.com

“회장님들 상반기 얼마 받았나”…신동빈 롯데 회장 102억원으로 최다

최태원 회장, 작년비 8억4000만 ↓
정익선 회장은 기아 보수 받지않아
구광모 회장, 71억 3900만원 받아

신동빈 롯데 회장이 올 상반기(1~6월) 재계 총수 중 가장 많은 보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각사가 공시한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신 회장은 올 상반기 롯데지주 42억4900만 원, 롯데쇼핑 9억4500만 원, 롯데케미칼 19억1500만 원, 호텔롯데 10억6100만 원, 롯데제과 10억2500만 원, 롯데칠성음료 5억4500만 원, 롯데물산 5억4500만 원 등 급여로 총 102억 8500만 원을 지급 받았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79억7200만원과 비교해 20억 원 이상 늘어난 규모다.



최태원 SK 회장, 정익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왼쪽부터).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은 신 회장은 대외 활동 리스크가 사라지고 현장 경영과 투자 활동에 더욱 매진할 여건을 마련한 만큼, 향후 그룹 역량을 결집해 경제 위기 극복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구광모 LG 회장은 올 상반기 급여 22억8800만 원, 상여 48억5100만 원 등 총 71억3900만 원의 보수를 받았다. 정익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은 현대차에서 20억 원, 현대모비스에서 12억5000만

원의 급여를 수령해 총 32억5000만 원의 보수를 받았다. 상여는 두 곳 모두 받지 않았다. 정 회장은 기아의 사내이사도 맡고 있지만 기아로부터는 보수를 받지 않는다.

최태원 SK 회장은 올 상반기 보수로 17억5000만 원을 수령했다. 지난해 상반기 25억9000만 원을 받은 것과 비교해 8억4000만 원 줄었다. 상여는 지급받지 않았다. 최 회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계열사인 SK하이닉스에서는 보수를 받지 않고 있다.

이밖에도 김승연 한화 회장은 올 상반기 보수로 (₩)한화 18억100만 원, 한화솔루션 18억 원, 한화건설 18억100만 원 등 총 54억200만 원을 수령했다. 허태수 GS 회장은 올 상반기 급여 12억9200만 원, 상여 40억7300만 원 등 총 53억6500만 원을 받았다. 이재현 CJ 회장의 보수는 올 상반기 지주사인 CJ주식회사 20억 8700만 원, CJ제일제당 18억2000만 원, CJ ENM 10억6100만 원 등 총 49억 6800만 원이었다.

한편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올해도 보수를 전혀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2017년 국정농단 사건 관련 재판을 받기 시작한 이후 5년째 무보수 경영을 이어가고 있다.

정정욱 기자